후원회소식

통권 180 호 | 발행일 2006. 10. 16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모든 종류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한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유엔에 호소

북에 대한 금융제재와 선박의 해상검문, 유엔 헌장 42조를 제외한 7장 전체의 조치를 명시적으로 허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14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3일 낮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대북제재 중심의 유엔 결의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_민중의소리]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박중기 선생님을 찾아뵙고 안진걸 • 5 / 감옥에서 온 편지 최진/이해길 • 11 / 기고-평화라는 입장에서 본 북한 핵실험 임승수 • 12 / 회원마당-산행기 김래곤 • 14 / 이런 회원-탁무권 님 오영순 • 16 / 알립니다 • 17 / CMS 신청서 • 18 / 8월, 9월 재정보고 • 19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0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3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1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되살아나고 있는 국가보안법 망령

- 역사의 반동에 편승한 반인륜적 공안몰이를 규탄한다 -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회장

"한총련은 3백만 대학생이 주인이 된 대중조직이지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가 떠벌이고 있는 '그 무슨 배후조정세력의 지령을 받는 조직'이 결코 아니다."

한총련에 대한 불법조작수사, 국정원,보안수사대 규탄 기자회견에서의 장송회 14기 한총련 의장의 단호하고 결의에 찬 발언이다.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보안수사대가 합동으로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유도해 이른바 '한총련 배후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지난 10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한총련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을 조작하는 국가정보원과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3 단독(판사 최호식) 심리로 열린 한국민원연구소 최희정 연구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첫공판에서 최희정 연구원은 모두진술을 통해 '조사받는 동안 검철의 회유와 압력으로 "한총련 배후조직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희정 연구원은 7월말 인터넷 등에 올렸던 글들과 관련 가택수색을 받고 보안수사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8월 18일 이적표현물 소지 및 제작 배포(국가보안법 7조 5항) 등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8월 24일 검찰로 송치되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혐의와는 별도로 검찰 송치 이후 '한총련 배후조직에 대한 조직사건 중심의 별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이 첫 공판에서 들어나게 된 것이다.

최 연구원은 모두진술에서 '구속된 후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뵈면서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과 늙으신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번도 직장에 다니며 월급 한번 가져다 드리지 못한 제 생활이 부모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해 드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부모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보자는 마음이 커졌습니다.'라고 조사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고 '모든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 조급함'과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을 악용, 새로운 조직 사건을 만드는데 집요하게 설득하고 회유했다고 했다. 공안당국의 이같은 회유와 협박으로 '지난 시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맞추어 사실이 아닌 '조직표'에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최 연구원은 그날 이후 '한시도 불안한 마음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서 '무고하게 피해를 받을 사람과 그 가족들, 또 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도 괴로운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러한 거짓진술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 등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변호사에게 거짓 진술을 말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이 이처럼 회유와 압력 등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허위진술 강요로 한총련 배후조직이 조작되고 있는 동안 최 연구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특히 검찰에서의 변호인 접견 불허와 교도관 입회하의 접견 허용이란 변호인 접견권까지 침해받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 연구원에 대한 가족외 면회를 전면 금지하여 법원 결정이 아닌 검찰에 의한 접면 제한이란 피의자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짓밟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한총련 배후조직'이란 이른바 '조직표'가 그려졌다고 한다. 조직표는 크게 '중앙지역 지도부', '지역 지도부', '단위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지도부는 서울, 영남, 호남, 강원, 춘천, 경기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 책임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또한 거론된 인물은 한총련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2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당사자에 대한 공안당국의 감시와 도·감청, 미행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변호인은 말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공안당국이 처음부터 노렸던 것은 '한총련 죽이기'였던 것으로 들어났다. 통상적으로 경쟁관계로 인식된 공안기구끼리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수사정보 교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인 수사를 해오고 있었다. 그런에 이 사건에서는 최 연구원이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국정원 관계자가 함께 했고 가택수색때 압수물품 조서에도 보안수사대 조사단과 함께 국정원 수사관의 서명도 들어있음이 대검 내부규정에 따른 기록열람에서 확인되었다. 위에서 밝혔듯이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회유와 압력, 가족외 면회금지, 변호인 접견제한, 공안기구의 합동 조사 등 처음부터 '한총련 죽이기'를 위해 공안기구 합동으로 '배후조직' 조작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음이 들어났다.

공안당국이 피의자의 심경변화등을 악용, 회유와 협박 등으로 허위진술을 유도 조직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면 이는 피의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반인륜적 행패이고 공직자로서의 독직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같은 허위자백 강요에 의한 '한총력 배후조직' 조작사건은 즉각 그만 두어야 하고 불법행위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한총련은 어느 애국단체와 다름없이 역사와 사회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이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자주통일, 사회진보와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 헌신해 왔다. 한총련에 대한 음해공작과 이적규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고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쫓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조치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한총련 죽이기'의 집행자가 공안기구라면 그들이 휘두른 흉기는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6·15 공동선언시대 이미 그 존립명분을 잃고 있던 국가보안법이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과 자주통일을 가로 막고 인간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며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의 수구냉전세력의 압승과 함께 보수극우집단의 발호에 편승한 공안기구의 시대착오적 몰가치 행패와 무관치 않다. 공안당국에 의한 국가보안법의 악령을 되살리려는 집념은 최근의 몇 가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로써 지난 여름 몇 년 전 학생운동을 했던 전력때문에 군복무중인 한양대학교 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군기무사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는가 하면 2003년 당시 이라크 파병반대 등 학생운동과 관련, 민주노동당 이주희 학생위원장을 3년이 지난 뒤 갑자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단이 방북기간 혁명열사릉 참배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으로 고발당하고 있었다. 또한 공무원 노조가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 폐지촉구 성명을 했다 하여 이적 시비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한국청년단체 협의회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항소심이 2년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재판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잘 알려진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론'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이란 흉기로 또 다른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자료집'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사건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6·15 공동선언 5돌을 맞아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조건에서 지난해 10월 교사들의 학술적 차원에서 이북 바로 알기 세미나를 열어 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남북 사이의 역사인식 차이를 익히려 했었다. 부산경찰청은 2006년 뒤늦게 자료집을 입수하여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단체인 자유민주연구학회에 '용공친북성'에 대한 감정

을 의뢰했고 연구학회의 자매단체인 이른바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규명 위원회'는 동아일보를 통해 지난 7월 26일, 이 교재에 대한 용공친북성 등 색깔론으로 왜곡보도하게 했다. 그리고 9월 4~5일 사이 보안수사대는 세미나에 참가하지 않은 교사까지 1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함께 참가사실 인정을 강요하는 허위자백을 요구하고, 동료교사 명단을 요구하는 협박성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9월 20일 전교조 소속교사 4명과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을 아무도 없는 새벽에 관계자 입회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26일엔 이에 항의하여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20여명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했다.

경찰당국의 용공조작몰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의 수업에 대해 조사하고 교사에게 일방적인 비방을 하는가 하면 교사가 이상한 말을 하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프락치 행위까지 강요한 반인륜 행패를 자행했다.

위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이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은 공안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전가의 보도'가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 군부통치,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이른바 참여정부에서도 이같은 반인륜적 조작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이나 '아람회 사건', '영남위원회 사건' 등의 반국가단체 조작사건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구나 오늘 우리는 6·15 공동선언 시대를 살고 있다.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과 자주통일로 가야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미·일의 대북 적대정책의 소산이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정책과 무관하며 오히려 더욱 민족적 대단결로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와 전쟁책동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 반인권, ·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관련 모든 공안사건 조작을 중단하고 구속양심수를 석방하라!

–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 인권침해기구 국정원, 공안검찰, 보안수사대를 해체하라!

알립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6 회원역사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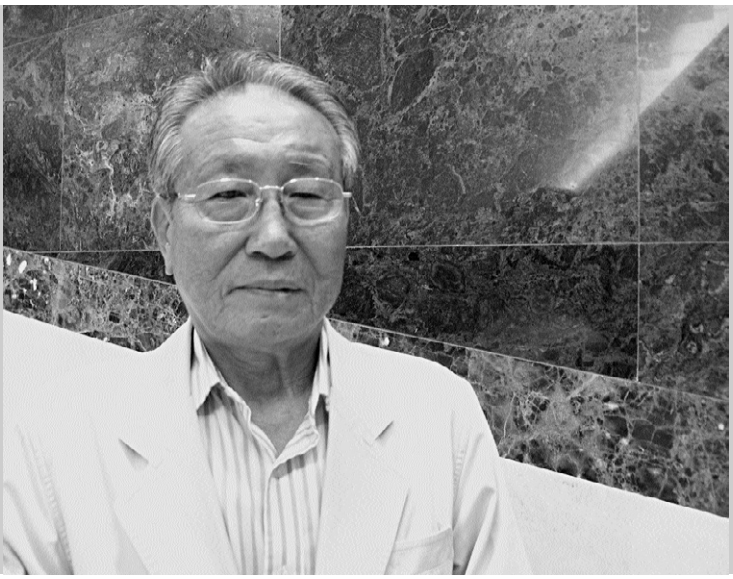
지난 여름, 회원수련회를 못하고 역사기행으로 대체한다고 하였습니다.
2006회원역사기행을 19세기말 제국주의 침략의 현장이었던 '강화도'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행은 양심수후원회와 옴시롱감시롱이 함께하고
민가협 어머님들과 출소장기수 선생님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 행사가 겹쳐서 잠정적으로 11월 11~12일로 잡았습니다.
확정되는대로 다시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언　　제 : 2006년 11일 11일~12일　■어디로 : 강화도 일대
■모이는 곳 : 신촌로터리 그랜드마트 앞 오후 2시

"난 억울한 귀신들 영혼 위로하는 무당이에요"

- 추모연대 박중기 선생님과의 인터뷰

안진걸 |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



잘 모르는 이들도 많을 것 같아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이신 박중기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회의' 의장으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 노 활동가(7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로 노동운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1·2차 인혁당 사건의 '한'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분……

박 선생님께서는 이미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도, "허허, 한 게 별로 없는데……. 나 같은 이를 인터뷰한다니……." 하시며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거듭 인터뷰를 사양하시는 모습에서, 73세의 나이에도 생업과 운동을 병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모습에서 선생님의 겸손하고 성실한 성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분을 뵙게 되어 제 기분까지 좋아졌지요.

어느덧 지긋한 연세가 되셨지만, 청년의 기상과 운동의 순결성을 꼿꼿이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 박중기 선생님을 당신께서 일하시는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소비조합에서 10월 10일 만나 뵈었습니다.

박 선생님께 '인혁당'은 인생을 관통하는 '열쇠 말(key word)'이 됐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인혁당이 선생님께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는지' 자, 인터뷰를 보면서 확인해보시죠.

-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간단히 소개 바랍니다.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회의(추모연대) 상임의장으로 일하고 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상임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추모연대에 제가 상근은 못하고 있고, 김영훈 집행위원장, 이형숙 사무국장 등이 열심히

상근하고 있지요. 2005년 2월부터 상임의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추모연대 의장 일을 하던 남상헌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권유로 '그래, 누구라도 돕는 일이라면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서서 일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 생업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곳 우리은행 본점 지하에 있는 소비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비조합은 우리은행 직원들을 위한 복합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비조합 안 꽃가게에서 일하고 있지요. 아는 분이 꽃 가게를 하고 있어서 나는 직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업도 하고 제가 하는 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 세월을 거슬러, 언제 사회운동에 뛰어드셨나요?

"4·19혁명이 계기가 되었지요.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후 대학도 다니고 일도 하려고 서울에 와 있다가 사람들과 함께 4·19혁명에 적극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4·19 공간이 확보했던 민주화와 통일열기가 1년 만에 군사정권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우리들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로서는 5.16 군사쿠데타와 분단군사독재정권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 그래서 1차 인혁당사건이 터진 것인가요?

"그랬죠. 군사독재정권이 옳지 못하니까, 우리는 4·19 정신을 복원하자는 뜻으로 저항했는데, 인혁당 사건으로 조작해서 저희들을 탄압한 것이죠. 원래 인혁당이라는 조직은 없었어요. 군사정권이 어떠한 조직도 허용 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에서 활동한 반독재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라고 하면 정확할 거예요. 박정희 이놈들이 63년 한일회담반대 투쟁을 계기로 1차 인혁당이 이 사건의 배후이며 북한과 연계 있는 조직이라고 조작해버린 것이죠. 당시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자발적으로 한일회담이 군사정권의 정치자금 모금 술책이고 또 다른 일본 예속화의 길목이라고 반대했던 것이었는데……. 독재정권이 63년 투쟁을 잠재우고, 반독재세력들도 탄압하자는 명목으로 사건을 조작해 저도 그때 64년도에 검거가 되었지요."

– 1차 인혁당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시 47,8명이 강제연행 돼 중앙정보부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이송됐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게 사건이 안 되니까, 기소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정권이 기소시효를 넘길 수는 없으니까 당시 공안부 숙직 검사 이름으로 기소를 강행한 거예요. 그래서 반공법위반으로 억지로 기소를 했는데, 당연히 사회에서 비판이 거셌죠. 검찰에서 그렇게 기소를 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됐어요. 다만 당시 도예종, 양춘욱 선생님 두 분은 원래 수배자이기도 해서 실형을 받았고, 저도 그때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 법정 구속돼 1년 실형을 살았지요. 거의 100% 조작사건입니다. 그냥 4·19 때부터, 또는 반독재활동을 위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도저히 사건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멀쩡한 사람도 때려잡아 사건을 만들 때이니까요. 자유당 때도 진보당 사건처럼 무리한 적은 있었지만, 일반인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박정희는 훨씬 악독했고, 또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죠.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 그래서 출소하신 후는 어떠셨는지요?

"아무 데서도 취직을 안 시켜주고……. 사실 지금까지도 취직이 잘 안돼요. 당시 고 박현채가 제 친구였는데요. 그 뛰어난 학자도 조선대 갈 때까지 직장이 없었어요. 겨우 92년 노태우 정권 말기에, 당시 조선대 이돈명 총장이 애를 써서 전임 교원으로 겨우 임명이 되었죠. 그러다 3년 정도 교수하다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고 박현채는 4·19 때 처음 만나서 그 후로 계속 친하게 지냈지요. 저의 경우는 1차 인혁당 사건 전후에서 지금 KBS 이사장인 김금수 선생님과 김달수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 중 김달수 씨가 목재상을 했는데요. 그 분에게 일을 배워 서교동 홍대 입구 대산목재라는 목재소에서 겨우 일을 했지요. 67년부터 정식으로 일하다가 3년 만에 잘 안돼서 그만뒀어요. 그러다 70년도에, 그때 이수병 선생이 형 만기를 살고 나와서 만났는데, 이수병 선생이 70년 말 종로에서 일어학원을 개설해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사설학원이니까 취업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일어강사로 한 3년 일 했죠.

– 그 즈음 두 번째로 수감되신 건가요?

"72년 유신이 선포되자, 73년부터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학생들하고 인연이 좀 시작됐어요. 4·19도 했고, 인혁당 사건으로도 수감되었었고……. 여전히 아는 분들이 반독재운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 유인물 찍는데 돈도 좀 주고, '불온서적'도 지원하는 등 도움을 조금 준 것이죠. 그게 문제가 돼서 서울대 철학과 나온 최동전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이재오 의원하고, 김정태, 김을수, 김달수 씨 등하고 내란음모죄로 두 번째 수감됐어요. 그때는 보안사 대공분실, 경찰, 중정 등이 경쟁적으로 사람을 잡아가두고 훈장 받고 그럴 때에요. 자신들의 공명심이나 출세를 위해 사건을 마구 만들었어요. 그때도 훈방해도 충분한 것을 사건을 만들어서 모진 고문을 했죠. 그래서 몸을 베렸어요. 박처원이가 그때 대공분실 책임자였는데, 그 사람 바로 밑에 양회주라는 사람이 지휘를 했어요. 그 양회주라는 사람이 '이놈은 진짜니까,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6개월을 복역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 이때쯤 2차 인혁당 사건이 있지 않았던가요?

"그랬죠. 제가 6개월 살다 나온 날이 74년 4월 19일 저녁이에요.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아침에 이수병 선생 등 2차 인혁당 관련자들이 연행됐더라고요. 역설적인 것은 제가 양회주라는 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내란음모죄로 6개월 동안 고생한 것 때문에 2차 인혁당 사건을 피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회주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 싶어요.(웃음) 그런데 저도 출소하자마자 8,9일 후에 연행이 됐어요. 3개월가량 실컷 조사당하고, 고문당하고…….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들어갔는데, 사건 조사하고 조작하는 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가까이 불법구금을 당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조작을 하려 해도 6개월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2차 인혁당 관련자들의 행보와 전혀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조작을 할래야 조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후로는 몸이 극도로 피폐해졌어요. 그렇게 4,5개월을 집에서 쉬었죠. 허리도 못쓰고 눈도 안보이고……. 그렇게 75년이 됐는데, 결국 천추의 한이 될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야 말았지요."

– 2차 인혁당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소식이군요?

"그렇죠. 75년 4월 9일 라디오를 통해서 아침에 사형집행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차 인혁당과도 관련 있었던 이수병, 도예종, 송상진, 서도원, 김용원 선생님 등이 2번째로 또 끌려가서 결국 사형까지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인혁당 관련자인 저의 경우는 내란음모로 6개월 살게 된 것이 2차 인혁당 사건에서 살아남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멀쩡한 사람을 죽인 것이죠. 정말 참혹하고도 참혹한 일이었어요. 지금 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진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이 역시 완전한 조작이었지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지금도 그러실 것 같고요…….

"뭐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지요. 당시 여덟 분이 사형을 당했는데, 나는 여정남 선생만 몰랐어요. 나머지 일곱 분은 4·19 때부터 알던 사람이고, 1차 인혁당 때도 같이 들어갔고……. 너무나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이었죠. 멀쩡한 사람을 죽인 이 악독한 정권을, 그에 가담했던 자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심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75년 4월 9일 집행하고 나서 바로 '사회안정법'을 만들어서 예비검속을 했어요. 그날부터 안기부에서 두 사람을 내게

붙여서 밀착감시를 하더군요. 집 앞에 아예 상주하면서……. 2년 동안을 감시당했어요. 당시에 홍대 입구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단칸방에서 애를 키우며 살았는데……. 몸은 망가지고, 친구들은 다 죽고, 철저하게 감시는 당하지, 어디 이동도 하지 못하고, 친구도 만날 수도 없고……. 정말로 기가 막힌 시절이었지요. 그러다 도저히 생업도 안 되고 해서 친구 권유로 고물 장사를 시작했어요, 78년 겨울쯤부터. 그렇게 70년대를 보냈지요. 참혹하고 슬픈, 고통스러운 70년대……."

– 살인독재자 박정희가 사망했을 때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생생하죠. 처음 소식을 듣자마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서양과 정서가 달라서 불교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업보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악을 너무 심하게 저질러서 그 업보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이 너무 커서 업보가 자식들한테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국가정체성을 운운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우스워요. 정말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정체성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책무나 성찰,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반역이죠."

– 그렇게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를 맞이하셨는데요?

"70년대 후반부터 돈을 빌려서 고물 장사를 시작해서 80년대부터 잘 됐어요. 그래서 사업에 열중하며 살았죠. 철강 관련 회사를 차려서 잘 되고 천안에 큰 공장도 짓고……. 그러다 97년 구제금융사태가 있었는데요. 그 시발이 한보그룹의 부도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한보철강에 많이 납품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돈 한 푼 못 받고 저희도 부도가 났어요. 80년대엔 돈을 좀 벌어서 생활에 도움도 되고, 어려운 이웃도 좀 돕고, 운동하는 분들도 좀 조용히 돕고 그랬는데……. 결국 96년도에 망하고 말았죠. 8-90년대에 민통련 할 때도 좀 가 보고, 민중당도 가 보고, 그렇게 틈틈이 재야단체나, 진보정당과 교류가 있긴 했는데, 후배들이나 주변사람들이 하니까 밥도 사고(웃음) 그렇게 관심은 가졌지만, 적극적으로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 당시에도 계속 감시를 당하셨나요?

"감시는 노태우 정권 때까지 계속 됐어요. 70년대처럼 밀착감시는 아니고, 3개월마다 신고하고, 요원들이 갑자기 조사하고……. 그래도 감시받는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도 운동하는 분들한테 돈도 좀 내고, 형무소 들어가면 변호사비용도 좀 내고……. 운동권 전체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이는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친분도 쌓고 있고 어떤 이는 도와주긴 했는데, 어느 순간 정치모리배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 노동사회연구소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것인가요?

"그때 이미 환갑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놀았지요. 그리고 그 전에 관심을 가지던 것이 노동사회연구소여서 거기에 좀 참여하고 그랬지요. 노동사회연구소는 제가 김금수 선생과 친해서 인연이 됐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부터 제 스스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요. 전 예전부터 민주화나 진보가 밑바닥에서부터 생겨야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운동을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 그 자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금수 선생님 하고는 친구이기도 하고 1차 인혁당 때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연이 깊어요. 김금수 선생이 초기에 노동교육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 결국 노동사회연구소 이사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도난 후 쭉 쉬려고 했는데, 98년부터인가 이사로 참여하게 됐어요.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여전히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노동조합 하나 만드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노조 하나 때문에 죽기도 했잖아요. 71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여전히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운동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양이 늘어나니 원래의 질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보는 분열에 망하고, 보수는 부패에 망한다'는 말처럼 진보가 적전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갈등까지는 좋지만, 경쟁도 좋지만, 내 것만 옳고 상대방 것은 옳지 않다는 아집이 결국 분열을 가지고 와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전의 분파가 노조나 당에까지 와서 아직도 분파를 일으키고……. 그것이 과연 역사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비관이 있어요. 예전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도 하고, 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파로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 못 하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자멸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동안 철학과 역사적으로 낙관해왔는데, 그러면서 단결해서 '적'과 맞붙어서 하나씩 하나씩 승리해야 하는데……. 지금 '적'과의 싸움보다는 안에서 싸우느라 정력을 소진하고 있으니 낙관하기도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 추모연대 일은 어떠신지요? 우리 나라는 열사들이 아주 많은 슬픈 나라입니다…….

"추모연대에 속해 있는 열사만 483인의 열사가 있어요. 하루에 한사람씩만 찾아가도 1년에 다 못 찾아봐요.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좋은 세상을 위해 희생되었어요. 5.18 희생자들, 6,70년대 고문이나 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빼고도 483인이나 됩니다. 1년에 한 번 합동 추모제하고, 광주 같은 곳에서는 지역 추모제도 있고요. 또 개인별 추모제에도 달려가고……. 그렇게 계속 추모와 계승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영혼의 안식이라도 빌어야 하지 않겠어요. 스스로 무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혼굿을 못 배워서 그렇지 그걸 배웠으면 아마 매일처럼 진혼 춤이라도 췄을 거예요."

– 추모연대 일도 그렇지만, 선생님 인생에서 '인혁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위치해 있네요.

"그렇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1차 인혁당으로 수감됐지만, 제 평생 74년 2차 인혁당 사건이 가장 가슴에 남아요. 31년 전 그 사형집행 사건……. 당시 미망인들이 대부분 30대였고, 아이들은 무척 어렸을 때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했는지 몰라요. 주변의 친구들이 미망인과 아이들 걱정하면서, 아이들 등록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생각이 나요. 지금은 다 장성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아마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도왔을 거예요. 제가 그런 정도로 인혁당을 추모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을 조금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결국 추모연대 일도 하고 있네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 선생님께서 맺은 1,2차 인혁당과의 인연과 마음씀, 그리고 역사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추모연대 일을 주변에서 추천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들이 바쁘니 나한테 떠넘긴 것이죠.(웃음)"

– 아까 말씀하신, 보안사의 고문 지휘자, 양회주라는 사람이 정말 보고 싶으세요?

"그건 참 묘한 감정이에요. 정말 찾아보고 싶어요. 살아 있다면 80세쯤 됐을 텐데 만나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진보당 사건도 다루었다고 말하는 등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어서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 때문에 2차 인혁당에 연루되지 않게 되기도 했지요. 출소했는데도 계속 감시를 지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만나면 묻고 싶어요. "당신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강자

앞에 비굴하면서, 약자들에게, 죄 없는 이들에게 그처럼 모진 고문을 가하고, 괴롭힌 사람들……. 이근안 같은 이들은 단순 고문 기술자이지만, 양회주 같은 사람은 머리를 쓰는 권력범죄자예요. 아주 지능적인 사건기획자들이었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 정말 한 맺힌 열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은 불행한 역사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근현대사 그 자체가 비극의 연속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영달을 위해서 모든 민족 · 민중을 배신하고 사대하면서, 고문하고 죽이던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해방이 되고, 4 · 19, 5 · 18, 6 · 10항쟁을 하고 세상이 바뀌었어도 잘 살던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고, 못된 경찰이 청장이 되고, 독재정권 시절 일선 판사들이 대법관이 되고……. 아직까지 한사람도 과거 악행과 관련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것을 못 봤어요. 고문경찰이 사과하는 것 한 번 못 봤다는 것이죠. 열사들만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위해서 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라면 언제 수구반동으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화가 진정한 민주화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조금 된 것입니다. 아직도 민주주의 많이 멀었고, 일자리도 없고, 극빈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력, 기억력이 없어서 못해요. 숨을 쉴 때까지는 하긴 하겠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야 됩니다……."

– 현재 73세이신데요, 그래도 평생을 사회운동과 함께 한 철학이 있다면요?

"철학이 아니고, 우리가 젊을 때부터 인민, 민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해요. 오늘 내가 좋다고 민중을, 인민을 버리면 그건 배신 아니겠어요. 제 개인의 자세나 판단이 인민, 민중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정치해서 뭐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돈을 벌면 뭘 하겠다고 그러고, 전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10원짜리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눠먹으면서 인민, 민중,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가야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좋은 삶이 아니겠어요? 잘 되거든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마치 군사독재자들의 선 건설 후 통일 구호처럼 말이죠.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요. 그냥 항상 이웃들과 민중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와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일자리가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적 잉여에 대한 최소한의 분배만큼은 꼭 이루어져야 해요. 양극화 심해지면 원망과 갈등만 남고, 그게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민중, 인민을 위해 실천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면 그게 운동이고요. 그렇게 평생 살아지는 거예요."

–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잘 지내세요?

"결혼을 했었죠. 친구 소개로 아내를 알게 된 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들어갔는데, 내 상황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친척들도 안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저를 옥바라지하다가 경찰에게 잡혀가고, 욕까지 들었는데도 출감할 때까지 옥바라지를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결혼해달라고 요청해서 66년에 결혼했어요. 3남매를 뒀고요. 다 결혼해서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미안하게도 아빠 때문에 클 때 고생을 많이 했지요. 아버지가 몇 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오니 저를 몰라보고 겁도 내더라고요. 현재 아들 내외와 아내와 함께 성산동에서 살고 있어요."

최 진 님의 편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

감옥에서 두 번째 가을을 맞고서야 첫 편지를 띄웁니다.

아침 찬바람이 예사롭지 않은데 모두들 건강하신지요?

저는 출소일을 닷새 앞둔 지금 몸도 마음도 매우 건강합니다.

잘 한 일이라고는 아이들 앞에서 더 거짓말하지 않게 학교 그만 둔 것과 남의 나라 아이들 가슴에 총부리 들이대는 일에 들러리 서는 이 나라 군대 가지 않은 것 밖에 없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아직도 '양심' 보다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양심수라는 호칭은 늘 찔림을 줍니다. 삼가 스스로를 살피라는 뜻으로 알고 출소 이후의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덥디 더웠던 대구에서부터 멀고 추운 이곳 청송까지 계속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대구 양심수후원회 원영민 간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영양에 오시면 술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양심수가 되기 전까지 양심수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악령이 나날이 판을 치는 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심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대열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맞서는 싸움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2006년 9월 24일 청송교도소에서 최진 드림

이해길 님의 편지

권오헌 회장님께

안녕하세요.

건강하신지요. 자주 편지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신을 드리는 것은 178호 후원회소식지를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입니다. 동지들이 투쟁해 온 발자취와 지금 하고 있는 투쟁들을 후원회소식지에서 접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보고 대전에 계신 이모님께 보내드리거든요. 이모님도 오래 전에 교사노조에서 투쟁하시다 해고되신 분입니다.

저는 89년 충남방직 노조투쟁자입니다. 대전교도소 3년 6개월 만기로 출소했습니다. 저 역시 취업이 불가하여 개인 일 등과 막노동 일을 하며 삽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고 후원회소식지라도 2007년 4월 2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지 발행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2006년 9월 18일

광주 교정에서 파랑새 이해길 드림

'평화' 라는 입장에서 본 북한 핵실험
- 북에게 '노예로 사는 평화' 를 강요하지 말라

임승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교육부장

2006년 10월 9일 오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모처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었다. 갑자기 부대 내에서 KBS 뉴스의 속보를 스피커를 통해 틀어주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주로 북한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식이었다.

점심 먹기 전에 예비군 교육의 일환으로 강의를 하는데, 북한이 한반도의 악의 근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졸고 있었다. 나도 잠시 졸다가 약간 관심을 가지고 교육내용을 지켜보았다.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극우보수세력들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진보진영 일부에서도, '평화' 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북한의 핵무장은 이런 절대적 명제에 위반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과는 달리 일차적 원인은 미국에서 찾고 있기는 하다.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북한 핵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 말이다. 나는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화'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우선 '평화' 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 보아야 할 듯 싶다.

'평화' 란 어떤 것일까? 굳이 국어사전을 찾이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전쟁이 없는, 무력 사용이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칼 맑스가 스파르타쿠스의 봉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생각난다. 칼 맑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봉기를 인류역사상 가장 정당한 전쟁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지배계급의 변태적 쾌락을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검투사들이 지배계급에 대해 봉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평화' 를 무력사용이 없는 상황으로 본다면 칼 맑스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봉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왜냐면 그 봉기에서 그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물론 로마병사들도 엄청나게 죽었다.

'평화' 라는 개념은 과연 이런 것일까? 그렇다면 녹두장군 전봉준도 비난받아야 한다. 그들은 '평화' 를 깨고, 농민항쟁을 일으켰다. 외세를 몰아내고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일어난 그들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독립군들도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파시즘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제저항군들도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평화' 를 위와 같이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린다.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을 담은 "볼리바리안 혁명" 다큐멘터리에서 우고 차베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되는 평화를!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우리 선조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평화나, 삶의 뿌리를 박탈당한 원주민이나, 죽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는 평화를! 정의가 구현되는 평화를! 존엄성이 보장되는 평화를!"

차베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단순한 평화이어서는 안된다. 사람이 존중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평화이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 문제의 원칙을 세울 때 사용하는 '평화' 는 바로 이런 평화이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평화' 라는 절대명제에서 우리의 입장을 세워야 한다.

이 땅에서 지금 평화를 깨려고 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 문제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확실해졌다. 북

한의 최고지도자와 남한의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데 합의한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북한, 그리고 남한의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남쪽의 지배계급 일부까지도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세력은 누구인가? 당연히 미제국주의이다. 한반도가 평화로워지면 주한미군의 존재조건이 사라지고, 무기를 팔아먹을 유력한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미국이 벌인 부도덕한 짓거리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들먹이면서 이라크를 침공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전쟁의 죽음으로 몰아넣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이라크의 석유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부도덕한 전쟁은 이미 전세계가 알고 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2002년 쿠데타를 배후 조정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칠레 아옌데 대통령, 파나마의 토리호스 대통령 등 수많은 사람을 암살한 것이 미국이다. 남한에게는 경제식민지로 가는 한미FTA를 강요하고 있고, 전략적 유연성이란 군사적 목적하에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대추리 주민을 내쫓고 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나마가 군사강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미국에게 농락을 당했을까? 미제국주의의 모든 종류의 위협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나마 처럼 되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다. 미제국주의는 힘없는 나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를 말이다. 이 선택지에서 노예처럼 사는 '평화'를 택한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 그렇다고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역량이 있을 때 제3의 선택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무력인 것이다.

물론, 무모해서는 안된다. 힘도 없는데 무모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모험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의미있는 구석이 많다. 나오는 뉴스들을 보라. 벌써부터 미국이 얘기한 레드라인은 "제3국으로의 핵이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해외투자자들은 매수세라고 한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에서 교착상황에 빠져있고 이란 문제로 정신이 없다. 게다가 중남미에서는 차베스를 선봉으로 좌파바람이 거세다. 전세계적으로 미제국주의의 전선이 교착상태 혹은 수세적 국면인 것이다. 이 시기에 나온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가장 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핵실험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경감시킨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핵 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탄까지 보유한 북한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나마와는 그 질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남한이 자신들의 안전한 핵우산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야 말로 진정한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아무런 카드도 힘도 없는 사람이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알다시피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해왔다. 미국은 그러한 협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 무슨 달러위조 문제를 내세우면서 6자회담을 파탄내려 했지만, 결국 상황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미제국주의의 무수한 위협과 경제제재 속에서도 '노예로 사는 평화'를 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남한의 진보진영은 어떠한 '평화'를 얘기해야 할까? 북한에게 미제국주의의 '노예로 사는 평화'를 선택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미제국주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자주적 평화'를 선택하는데 함께 할 것인가?

우리가 평화의 개념을 명확히 할 때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해진다.

편집자주_이 글은 2006년 10월 10일자 '민중의 소리'에 기고된 글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부의 기상을 펼쳐보았으면

김래곤 | 후원회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산세가 수려하고 물은 맑으며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은 내 조국입니다. 금강산 하나만 보더라도 자연 지질학적으로 알프스산보다 더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산맥을 형성했다고 하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산세의 정기를 받아 진취적으로 억세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9월 17일) 우리가 산행할 곳은 수락산입니다. 수락(水落)산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류 계곡에 암벽이 많아 경관이 뛰어나고 옥류폭포, 은류폭포, 금류폭포가 연이어 있어 산 위에서 계속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락산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한다는데 나는 별로 물을 보지 못했습니다.수락산은 또 반역산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락산이 서울을 등지고 앉은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서울을 도읍지로 삼은 이성계의 뜻에 반한다하여 반역산이라고 했답니다. 오전 10시경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모여들었고 변함없이 권오헌 회장님과 등산대장인 신현익 형이 일행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서로 힘찬 악수를 하며 다정다감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의 특별손님은 병권 형과 함께 온 나주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구한이였는데, 구한이는 나주에서 서울까지 교환학생으로 온 병권 형 부인 친구의 딸입니다. 구한이는 농민운동(나주농민회 소속)을 하시는 부모님과는 달라서 수줍음을 꽤 많이 탔습니다. 그렇지만 한이는 정말 잘 생긴 동생 호준(유치원생, 병권 형의 아들)이와 단짝이 되어 산을 잘 오르고 내렸습니다.

10시 17분 점검을 끝마치고 산으로 출발! 산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산행 동료와 그동안 못한 무수한 이야기를 하거나 질의응답하며 서로를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 맛일 겁니다. 거기에다 가는 길에서 시원스레 목을 축여주는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부회장이신 김호현 형이 가져 온 맛좋은 황태포와 양념장 상당히 넉넉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헉헉 힘들어! 내 뒤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와 앞질러 가는데 나는 일행과 뒤쳐져서 결국 꼴찌로 올라 기다리는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일행은 너그럽게 나를 기다렸다가 나무에 매달려 턱걸이를 해보라는 얘기, 산행을 조금만 더 하면 괜찮다는 얘기 등 위로 섞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하여간 연로하신 변숙현, 김교영, 유기진, 송세영, 김을수 선생님과 다른 모두에게 정말 죄송했습니다(창피하지만 제가 그랬다는 것을 안 쓰면 혼이 난다기에……).

역시 산의 정상에서 보는 경관은 언제나 기가 막힌 풍경입니다. 조국이 내게 안겨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나이의 원대한 포부를 담은 시라도 한 수 읊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래 우리 선조들은 풍류를 즐길 때 꼭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으로 시와 노래 등 문학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단체사진 한두 컷을 찍었고 김재선 형님이 또 한 컷을 찍었습니다. 산행하는 사람이 많아 자리를 비켜주어야 했던 사정도 있고 해서 12시 30분께 점심식사를 빨리 끝내고 깔딱고개로 하산했습니다.

신현익 형과 옴시롬감시롱의 으뜸일군 신현부 형이 쓰레기 처리를 책임졌습니다. 저는 지리산 빨치산 여전사이신 변숙현 선생님을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왼쪽 팔이 의수인 선생님께서는 경사가 급한 하산길이 조금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을 오를 때보다는 내릴 때 더 솜씨가 있답니다.

드디어 오늘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시사문제를 논하

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산하다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김재선 형님이 정성스럽게 가져온 싱싱한 포도로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권오헌 회장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주 중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이 있기전 미재무장관에게 노무현대통령이 북에 대한 금융제재를 언제 풀 것이냐고 물으면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불편함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사례를 들며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은 매향리 미군사격장 폐쇄투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이 확장 반대 투쟁을 강력하고 줄기차게 밀고 나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협상에서 한미FTA협정을 그 무엇과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확실치는 않으며 단지 우리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한미FTA를 반대해야 한다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2000년 9월 2일 송환되신, 신념과 의지의 강자이시며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였던 비전향장기수 김석형 선생님(89세)과 오형식 선생님(74세)이 최근인 8월 14일과 9월 2일에 각각 서거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소식도 알려주셨습니다.

김석형 선생님의 장례는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치러졌고 오형식 선생님도 장례를 마친 다음 김석형 선생님과 함께 경치가 수려한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정중히 모셔졌다고 하였습니다. 권오헌 회장님의 말씀 도중에 김교영 선생님이 남모르게 오열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오헌 회장님께서는 어제(16일) 제17회 민족민주열사추모대회 때에 있은 수구냉전세력의 난동에 대하여 나라와 민족도 모르는 극악한 수구냉전세대들이라고 하셨고 애국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보수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회장님의 발제가 끝나자 약간의 질의응답과 확인사항이 있었습니다. 비록 산상에서 한 소박한 토론이었지만 모두 다 애국애족의 한마음이었기에 투쟁의 결의를 가슴에 담고 다시 하산 길로 나섰습니다.

권오헌 회장님께서 어릴 적 의협심과 담력을 키우던 때가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회장님께서 급경사 형태의 큰 바위 꼭대기까지 단숨에 뛰어올라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하셨습니다. 그에 질세라 현익 형과 병권 형 그리고 제가 뒤따라 올라섰습니다. 선생님들과 나머지 분들도 부추겨 주셨습니다. "지금 발아래 내가 밟고 있는 이 바위는 양키 침략자 아니면 쪽바리 사무라이들이겠다. 좋구나!"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 속의 그 전어의 고소한 회무침과 구이를 놓고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잔을 높이 들면서 뒤풀이를 하였습니다.

전 인민군 군관이셨던 유기진 선생님께서는 우리 장기수 선생님들이 조금 더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며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호현 부회장님이 역사와 유래를 자랑하는 우리 양심수후원회가 지난달 영치금이 부족한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고 걱정하였습니다. 권오헌 회장님께서 돌아오는 역사기행은 민가협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가깝고 역사유적과 유물이 많은 강화도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저런 이야기와 화목한 분위기 속에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2차 뒤풀이는 재선 형님, 현익 형, 호현 형, 현부 형, 제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산행하면서 민자통 상임의장님이신 김을수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제 모든 얘기에 긍정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산행이 즐거웠다고 하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떠나신 분들이 있어서 산행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번 산행에는 모두 다 꼭 참석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힘을 다진 산행을 바탕으로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 천지에도 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장부의 억센 기상도 펼쳐보았으면 합니다.

21세기 역사의 풍랑을 맞아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여도 강의한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세찬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부드러움과 굳센 의지가 뿜어내는 아름다움

—탁무권 회원을 찾아서

오영순 | 편집위원

바쁜 일상 속에 숨을 고르게 쉴 틈도 없이 나간 자리이기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던 필자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탁무권 회원님이었다. 그에 대해 여기저기서 조금씩 주워들은 이야기와, 언젠가 얼핏 같이 했던 모임 자리에서 뵈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푸근하고 정다운 모습이어서 취재한다기보다는 이웃사촌을 대하고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는 자리처럼 자연스러웠다.

1957년 1월 30일(양력) 부산에서 태어나 줄곧 서울에서 생활하였다는 탁무권 회원님은 2남 2녀 중 막내이다. 어렸을 적 덩치도 크고 이름도 특이하여 남의 눈에 잘 띄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회원은 우수생이면서 모범생이어서 어디서든 남에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듯하다.

아버지는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이셨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 밥 먹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시던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였을까 그때만 해도 반공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던 사회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어릴 적부터 회원은 이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 생각되었다 한다.

그 영향으로 유년 시절에 성숙한 사회의식을 갖게 되어서였을까? 성균관대 사학과에 들어가자마자 '농촌문제연구소'라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농촌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학습에도 열정을 다했다는 회원은 대학시절 일반적인 학생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주로 후배들과 생활하고 부대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생활했다 한다.

1978년 '민학년'에 가입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던 탁무권 회원은 유신말기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된다. 그러나 다행히 최소가 3년 형이고 최대는 사형까지 받았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음 해인 1980년 5월 5일 특사로 출소하게 되었다는 회원은 자신이 운이 좋았노라고 말한다. 권오헌 회장님을 알게 된 것도 '남민전' 사건에 같이 연루되면서라 하니 참으로 별난 인연임엔 틀림없다.

공부를 잘 해서 '어떻게 사회를 민주화하느냐?'라는 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애초부터 직장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회원. 주위에선 그를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라 말하지만 그는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무엇이든 나서서 일을 벌이는 성격인지라 조직에 얽매이는 걸 잘 견디지 못했다는 회원. 규제를 하거나 주어진 걸 하라고 하면 감당을 못해 일이 서툴렀다는 회원. 도리어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 개척하는 일이 훨씬 능률적이었다는 회원은 분명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

1988년 후반 부평에서 여러 명이 힘을 합해 '한겨레문고' 서점을 열 때 주도적으로 앞장을 섰고 그곳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생활하였다는 회원이 경영자의 길로 들어선 건 그 이후이다.

1994년 '노원문고'라는 대형서점을 열면서 경영인이 된 회원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부'라 생각했기에 사업이 흑자든 적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1년 안에 그 지역과 어려운

곳에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품었는데 그 뜻은 1년 안에 이루어져서 지금도 기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06년 봄 노원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교육과 미래'라는 교육복지재단을 출범시킨 회원은 그 것 외에도 맡은 역할이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아 보인다. 교육복지재단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창의력은 늘 멈추지 않고 무엇인가를 찾아 뜻있는 일들을 하는 데 앞장서는 회원의 소박하고 겸손한 품성이 원동력이 되는 듯하다.

해맑고 티 없이 웃는 어린아이를 연상케 하는 회원은 소박하고 검소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 필자는 같은 경영자로서 왜 이런 것들을 실행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다.

매여 있는 걸 싫어해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짜여 있는 일과표보다는 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열정을 다한다는 탁무권 회원을 사람들은 재주꾼이라 부른단다. 하지만 일상이 바쁜 회원의 삶은 성실과 검소 그 자체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움과 드러나지 않은 강하고 굳센 의지를 지니고 있는 회원의 삶이 눈부신 이유도 늘 자신의 삶에 성실을 다하고 뜻있는 일들에는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것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되돌아오면서 무심코 올려다 본 가을 하늘은 드높았다. 회원을 만나기 전 무겁기만 했던 필자의 마음속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아마도 탁무권 회원의 삶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드높고 눈부시기 때문일 것이다.

알립니다

가정용 가스렌지, FAX기를 구합니다

만남의 집 부엌의 가스레인지가 너무 많이 부린 탓인지 고장이 났습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인데 후원회 재정이 부족한 이유로 염치불구하고 회원님들에게 구합니다. 모양 필요없이 사용하기 튼튼한 가스렌지면 중고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후원회 사무실의 FAX기도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입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장식 필요없는, 오로지 팩스 기능만 가능한 실용적인 것이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부디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11월의 이북영화 상영회

■일 시 : **11월 14일(화) 오후 6시** ■장 소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광화문우체국 6층)**

■작품명 : 민족과 운명 제28부 (노동계급 편 제3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95년제작)

■줄거리 : 전쟁에서 귀환한 죄로 괴로워하는 귀환병들을 포용하는 강선 직강소의 강태관 직장장과 주변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이다.

※문의 : **한찬욱(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FAX : 02-888-4470 ■E-mail : yangsimsu@hanmail.net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2006년 9월 재정보고

입금내역	입금 총액	3,730,067
	지 로	1,135,700
	국민은행	110,000
	농 협	675,000
	제일은행 일반	185,000
	하나은행	60,000
	현금입금	540,000
	합 계	3,695,700
	전월이월	34,367
	총 액	3,730,067

지출내역	지출 총액	3,683,810원
	가. 양심수관련 양심수 50명 영치금 110명 민족21 발송	745,540
	나. 출소장기수지원 장기수생활비지원 만남의 집지원 정순택선생님1 주년행사	740,890
	다. 소식지관련 소식지 1,300부를 제작하여 국내 1,041통, 국제10통을 보냈습니다.	906,710
	라. 사무국 활동비	350,000
	마. 연대사업 유가협 민가협 장터 통일연대전민특위(정유미치료비후원) 평택집회참가	393,200
	바. 교통·통신비 인터넷 전화 각종 통신 및 교통비	197,800
	아. 회원사업및운영비 프린트기기구입 회원부친상조문 벤프로 및 은행이용수수료 사무실 문구구입 등	349,670

차기 이월액	3,695,700원(당월입금) + 34,367원(전월이월) − 3,683,810원(지출) = 46,257원(잔액)

2006년 8월 재정보고

● 8월 수입 내역●	회비수입	3,925,000
	차 입 금	1,300,000
● 8월 지출 내역●	가.양심수관련	950,150
	나.출소장기수지원	627,970
	다.소식지관련	841,810
	라.연대사업	150,000
	마.회원사업	119,790
	※ 8·15행사분담금	500,000
	※ 북녘수해돕기	500,000

사무국실무진의 사고(연락 두절)로 8월의 올바른 재정보고가 불가능합니다.
회원여러분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리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6년 10월 13일 현재 총 107명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조준행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2006-08-21	공동공갈			수원구 330	미결
이영록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2006-08-21	공동공갈			수원구 308	미결
김종덕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2006-08-21	공동공갈			수원구 310	미결
이광일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2006-09-30	공동공갈			수원구 350	미결
조희구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2	집시			대구구 86	미결
이수동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8-16	집시			대구구 60	미결
한인석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8-16	집시			대구구 51	미결
이극문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12	집시			대구구 81	미결
장장원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2	집시			대구구 74	미결
신현범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7	집시			대구구 72	미결
김은수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6	집시			대구구 71	미결
장광수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6-15	집시,공갈,갈취			대구구 75	미결
조기현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6-15	집시,공갈,갈취			대구구 79	미결
이정래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8-16	집시			대구구 53	미결
문강호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7	집시			대구구 99	미결
이상경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2	집시			대구구 73	미결
오상룡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2	집시			대구구 70	미결
이길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6	집시			대구구 91	미결
이성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6	집시			대구구 96	미결
문정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6	집시			대구구 68	미결
이옥선	노동자	건설노조(충남)	노조활동 관련	2006-06-16	업방			천안구 5057	미결
하동현	노동자	건설노조(충남)	노조활동 관련	2006-06-16	업방			천안구 5554	미결
정갑도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2	미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2	미결
김학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 36	미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4	미결
김용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37	미결
김종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37	미결
권일영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39	미결
박웅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1	미결
정승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1	미결
이정모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2	미결
최진동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0	미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0	미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3년6월	항소중	대구교 29	미결
박득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8	미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27	미결
최영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대구구 26	미결
신수복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5	미결
김중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3	미결
김영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3	미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5	미결
김윤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1	미결
박성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1년6월		대구교 24	미결
진남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2006-08-17	집시			포항교 3071	미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3	미결
진덕원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4	미결
김영주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8-31	업방,폭력,집시			포항교 3073	미결
지갑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8-23	업방,폭력,집시			포항교 3072	미결
장재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8-14	집시			포항 북부서	미결
고진덕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61	미결
김상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45	미결
박성훈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60	미결
박훈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62	미결
유기수	노동자	건설연맹	8.9 노동자대회(포항)	2006-08-14	집시			포항 북부서	미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7-05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8/01	대구교 52	기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12-29	업방,폭력	10월+8월	2007/06	부산교 874	기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크레인시위"	2005-05-17	업방,폭력	1년6월	2006/10	진주교 6	기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7/10	대구교 86	기결
박태규	노동자	금강화섬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장옥기	노동자	덤프연(광주전남)	파업	2006-09-07	업방			순천교 467	미결
이영철	노동자	덤프연대	파업	2006-06-10	업방,집시			인천구 5030	미결
이태영	노동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경기) 활동관련	2006-09-14	공동공갈			수원구 317	미결
최은민	노동자	민주노총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2006-08-17	집시			포항교 40	미결
하영구	노동자	민주노총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반대시위관련	2006-10-13	집시			종로서	미결
채근식	노동자	민주노총	8.9 노동자대회(포항)	2006-08-14	집시			포항교 3065	미결
김재진	노동자	민주노총(광전)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파업	2006-08-09	집시법			순천교 408	미결
이영도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8.9 노동자대회(포항)	2006-08-14	집시			포항교 3066	미결
전필원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8.9 노동자대회(포항)	2006-08-14	집시			포항교 3067	미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2005-06-13	집시,특공	1년6월	2006/12	청주교 792	기결
김병일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6	미결
송무근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7	미결
황우찬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2006-08-17	집시			포항교 3070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2005-02-22	명예훼손,정통법	3년+2월+6월	2008/10	영등포교 13	기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2003-12-10	집시,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오병용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204	미결
임헌진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189	미결
양순직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491	미결
송대균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204	미결
하명학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428	미결
최병승	노동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	2006-08-14	업무방해			울산구 48	미결
권수정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소송법	8월	항소중	대전교 70	미결
오지환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소송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916	미결
김준규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소송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734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반대 농성	2005-11-05	특공,치상	1년6월	2007/05	순천교 1695	기결
홍종선	노동자	화물연대(예천)	파업	2006-09-28	업방,집시	6월	항소중	충주구 251	미결
박호진	노동자	화물연대(충청강원)	파업	2006-09-28	업방,집시	6월	항소중	충주구 250	미결
박경연	노동자	화물연대(충청강원)	파업	2006-09-28	업방,집시	1년	항소중	충주구 249	미결
김지태	농민	대추리 주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2006-06-05	"업방,집시,특공"			평택구 201	미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3-06	병역법	1년6월	2007/09	진주교 1204	기결
전욱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2004-11-18	국보	3년6월	2008/05	광주교 5009	기결
김훈태	재야	교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22	병역법	1년6월	2007/11	논산구 370	기결
최희정	재야	민권연구소	이적표현물	2006-08-18	국보			서울구 241	미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7	의정부교 1723	기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19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향의	2004-06-20	특가법	1년+6월	추기기소	춘천교 451	미결
김태훈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17	병역법	1년8월	항소중	서울구 1494	미결
이용석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8-18	병역법	1년6월		인천구 2232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경주교 500	기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03	화염병치사	6년		장흥교 11	기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20	특공공방	1년6월	2006/10	청주여 15	기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홍성교 200	기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2년6월	상고중	서울구 20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3년		안동교 15	기결
오기성	재야	평택지킴이	대추리 불법검문	2006-08-09	특공			평택구 215	미결
오정록	재야	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8	서산구 103	기결
고동주	학생	카톨릭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9-21	병역법	1년6월	보석취소	영등포구 2305	미결

알립니다

북녀어린이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합니다.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개중인
'북녀어린이콩우유보내기운동' 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핏줄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
■예 금 주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01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권오헌 외)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6돌을 맞아 '조건 없는 비전향장기수2차 송환을 촉구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다. 성명에서는 6·15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비전향장기수2차 송환을 촉구하며 정부 당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상호주의론을 규탄하다.

용산 철도웨딩문화관에서 '들꽃 같은 혁명가 정유미 동지 쾌유를 위한 벗들의 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다.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신 분 소개, 전민특위 남측 위원장인 범남본 남측본부 의장의 인사말,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의 격려 말, 아름다운 형제들의 노래공연, 전민특위 공동 사무국 정유미 사무총장의 미국과 국내에서의 활동영상 상영, 광주에서 온, 정유미 씨와 함께 활동한 동지의 편지 낭독, 정유미 씨의 영상 인사말, 약혼자 쟈니 씨의 인사말, 노래패 희망새의 공연 등이 있었음. 정유미 사무총장은 남북해외를 다니며 미군범죄 조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현재 충주에서 식이요법 등으로 치료하고 있음.

용산 미8군 5번 문 앞에서 법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전농, 한청 등 통일연대 소속 단체 회원과 평통사 소속 회원 등 40여 명이 모여 지난 8월 21일부터 을지포커스훈련 연습 반대 릴레이 농성 마지막 집회를 열고 농성 해단식을 갖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의 여는 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진경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한총련 대표 등의 결의발언과 성명 낭독 등으로 순서를 마치다.

02

지난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로 송환된 오형식 선생님이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서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인터넷 신문들이 보도하다(후원회소식 179호)

03

2006년 모스크바 세계여자청소년축구대회의 결승전에서 이북대표팀이 중국팀을 3:0으로 이겨 대회 우승을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남북을 통틀어 축구 종목 세계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하다.

04

7월에 공안당국이 부당하게 포항 건설노조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여 양심수 구속자수가 갑자기 늘어나다. 그래서 8월분 영치금을 양심수 모두에게 보내지 못하고 7,8월에 구속된 포항과 대구 지역 건설노동자 양심수에게만 보내기로 하다.

서울 중구 수송동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 앞에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연대 주최로 올바른 명예회복 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청산역행하는 최근의 심의 과정을 규탄하고 명예회복법 취지에 맞는 심의를 할 것을 촉구하다.

05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국원정투쟁단 출국기자회견을 열다. 원정단 정광훈 단장의 여는 말,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결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원정단은 총 50명으로서 본대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3차 협상기간인 6~9일까지 반대시위 등을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 인사들이 서울 안국동 달개비(옛 느티나무 카페)에서 3차 협상에 즈음하여 '한미 FTA협상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선언' 을 발표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1,417인의 문화예술인 서명자를 대표해 연극인 최종원, 미술인 임옥상, 시인 송경동, 전국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등이 결의발언을 하다.

06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한미FTA 추진에 반대하는 12,142,277+1 서명운동을 벌이다. 이 숫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수에 한명을 더한다는 뜻으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여 한미FTA를 추진하는 데 대한 항거의 뜻이기도 하다. 참가대표자들은 큰 펼침막에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서명을 하다.

권오헌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상임 공동대표는 2006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송환 6돌을 맞아 연합뉴스 통일초대석에 초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 등 관련 인터뷰를 하다. '통일 초대석' 은 연합뉴스가 하는 연속기획물로서 통일 문제에 영향력을 갖고 해당 부문

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며 한완상 적십자 총재, 백락청 6·15공동위 남측 상임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초대되었음. (인터넷 연합뉴스 통일초대석)

공덕동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의실에서 '2006년 4차 대표자회의(이사회의)'를 열다. 권호헌 이사장 주재로 지난 회의 보고, 민주화법 개정, 민주유공자법 제정, 민주공원 관련 사업보고, 제17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범국민추모제 행사 관련 보고 등에 이어 본 안건으로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토의 끝에 채택하다.

광화문거리에서 한미FTA 저지 서울운동본부와 고 하중근 열사 대책위 공동으로 '한미FTA 협상중단' 촉구 촛불문화제를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500여 명이 모여 열리다. 문화제에서는 한미FTA를 풍자한 '횡성댁' 판소리와 서울학생대책위 학생들의 춤과 노래 공연이 있었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결의발언 등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같은 자리에서 고 하중근 열사 추모제가 열려 포항 건설노조 투쟁을 담은 영상 상영, 민족춤패 '출' 공연, 서울 상경투쟁단 김진배 단장의 추도사, 서울지역 비정규직 연대회의 김형수 의장의 연대사 등이 있었음.

07

서울 검찰청 앞에서 강정구 교수 대책위, 실천연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가협, 통일연대 국보특위, 한총련 등 공동으로 공안탄압 및 국가보안법철폐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강정구교수대책위와 민권연구소 유옥린 상임연구원, 이주희 학생위원장의 사례 발표와 통일 연대 국보특위장 권오헌(양심수후원회 회장)의 국보법 폐지 정치연설이 있었음.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32회 목요집회 열리다. 권오헌 공동의장 여는 말을 하다.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만남의 집(양심수후원회) 법인 정관개정과 관련 관악등기소에서 인감카드 발부 받았고 인감증명과 등기부 등본을 각 2부씩 발부받다.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에서 여야국회의원 23명이 정부의 한미FTA 추진이 국회의 조약체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내는 기자회견을 열다. 소송에 참여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이고 민주노동당에선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손봉숙 의원이 함께 했음.

08

청와대 인근 정부청사 별관 앞에서 평택 범대위 주최로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와 한미 FTA 협상저지를 위한 전국 행진단 출발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 조준호 대표와 문정현 신부, 김세호 대표, 신종원 팽성주민대책위 조직국장이 결의 발언을 했고, 이어 청와대 앞을 떠나 광화문 네거리를 돌아 열린시민공원까지 행진하다. 전국 행진단은 35명으로 의정부, 인천, 광주, 군산, 나주, 창원, 부산, 울산, 대구, 구미, 안동, 광주, 대전, 안산, 부천 등지를 돌며 지역단체들과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하다.

서초동 정평 공증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만남의 집" 정관개정 관련 회원 인감증명과 위임장,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정관개정 의사록 공증을 마치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다.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 6.15청학연대, 서총련 등은 미군강점 61년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결의대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대북선제공격 훈련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 6자회담 파탄 장본인을 이북이라고 하는 점, 미사일 발사 등 자위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주한 미군 영구 강점 이유,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 협력을 방해하는 이유 등을 엄중히 문의하다.

09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삶을 상품으로 만드는 FTA 반대, 의료비 폭등시키는 영리병원화 반대 등 규탄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을 국내기업 영리병원화 허용 및 사회보장축소, 의료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의료시장화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하다. 마치고 시내 행진을 하며 홍보물을 나누어주다.

11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재심 8차 공판이 열리다. 이날 증인으로는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유인태 국회의원이 증언하다.

시청 앞 광장에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범국민추모제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제17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범국민추모제 및 추모주간 선포식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행사준비위원장의 인사말,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백인숙 최고위원의 결의 발언과 민주노총 부의장의 선포문 낭독이 있었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필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항의 농성하며 과거사법 시행령 개정과 조사인력 확충, 접수된 진상규명 신청 건의 빠른 조사를 촉구하다. 이날 피학살자 유족대표들은 송기인 위원장과 김동춘 상임위원 등을 면담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인 대추리, 도두리 일대 빈집 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택 범대위 주최로 주택 강제철거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야만적인 강제 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객관적 사실과 변화된 상황 고려없이 강제로 빼앗으려는 야만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12

이승미 회원의 아버님이신 이양노 화백께서 오랜 암투병 끝에 11일 임종하시어 고려대 장례예식장에 빈소를 차려 회원들이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고인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한국미술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셨고, 제1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입선(1949)을 시작으로 60여 년 동안 국내외에서 작품활동을 하셨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화력 60년 회고전을 열기도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 당국이 대추리 등에서 하려는 빈집철거 방침에 대비 천주교 인권위원회 변연식 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상임 활동가, 다산 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천주교 인권위 배여진 활동가, 인권운동 사람방 김동수 돋음 활동가 등 5명이 빈집철거를 온몸으로 막아 나서겠다고 선언하다. 이들은 대추리 인권지킴이집 옥상 평화전망대에 올라가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과 구속'을 각오하고 철거를 막겠다고 하다.

용산 국방부 앞에서 매향리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대책위원회 주최로 군산 지역 주민 50여 명이 함께하여 매향리 폭격장 직도 이전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전희남 상임대표, 이강실 공동대표,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의 결의 발언이 있었고 항의 서한을 국방부에 내다.

13

이날 새벽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대추리, 도두리 등 평택 지역 미군기지 이전부지 내 빈집들에 대해 오늘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히다. 철거대상은 대추리 44개소, 도두리 38개소, 그밖에 7개소 등 총 90개소이다.

국방부 발표와 동시에 이날 새벽 18,000여 경찰 병력과 용역직원 수백 명이 철거지역에 속속 도착하여 오전 7시 용역들이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 경찰의 엄호 속에 빈집 철거에 들어가다. 이보다 앞서 6시 30분 평택지킴이 50여 명은 결의대회를 갖고 결사저지를 결의했으며 인권지킴이 4명은 평화전망대로 다른 지킴이들도 각기 철거대상 옥상에 올라가 저항 자세를 취하다. 그러나 경찰과 용역 그리고 사복들은 평화전망대에 올라간 인권지킴이들을 8시 50분에 강제연행했으며 잇달아 철거행패가 자행되다. 같은 시간 도두2리에서는 저항하는 주민들을 폭력으로 밀어내며 20여 채를 모두 부수다. 한편 이같은 만행이 진행되는 동안 대추분교 운동장에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 이전 대책기획단' 김춘석 부단장이 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하고 "매국노 김춘석"이라고 외치며 몰아붙이자 김춘석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줄행랑치다. 이처럼 이른바 빈집철거라는 또 다른 5.4행정대집행은 오후 4시까지 이어져 74채를 짓부수다. 그러나 박진 인권활동가 등이 올라가 있던 집은 끝내 부수지 못하고 철수하다. 오후 3시 대추분교 앞에서 천주교 인천교구 양주용 신부 집전으로 평화와 생명을 위한 미사가 열리기도 하다.

오후 늦게 용산 국방부 3게이트 앞에서 평택범대위 주최로 대추리, 도두리 빈집철거 등 야만적 침탈행패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다. 250여 명이 모여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말과 현장에서 올라온 평택지킴이 등의 현장보고, 자유발언 등으로 국방부 당국을 규탄하다. 촛불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촛불을 밝히면서 지하철 삼각지역까지 항의 촛불행진을 하다.

14

민가협 633회 목요집회.

통일연대는 '9.14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다. 성명에서는 미국은 대북금융 제재 해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반대, 제2의 한일합병 같은 한미FTA 반대 등을 주장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통자문회의, 서울평화통일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제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 – 남북경협 15년 그리고 개성공단'이란 주제로 남북경제협력 정책 심포지엄이 열리다. 토론회에서 신언상 통일부차관은 남북경협은 추가적인 긴장고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으며 안보의 불안정성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켰다고 하다. 또한 박경서 통일협회 이사장도 남북경협을 위한 인프라 조기 구축,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해결,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다.

15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통일연대 소속 통일원로 50여 명이 모여 "평택강제철거규탄, 미군기지 확장 저지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사회로 한상렬 상임대표의 여는 말, 홍근수 평통사 상임공동대표와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의 규탄발언과 김수남 통일연대 고문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이전반대" 강제철거 규탄한다'라고 쓴 스티커를 국방부 앞 바리케이드 등에 붙이고 국방장관면담을 요청하며 국방부로 가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항의서한을 정문 안으로 던져 넣다.

양심수후원회 사무국간사가 지난 13일부터 아무 이유 없이 오늘까지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이날 부득이 비상체제에 들어가다. 후원회소식 발송작업과 8월달 월별 결산도 되지 않고 있으며 후원금 관련 은행통장과 도장, 관련 서류 등이 없어 사무국 기능이 완전 마비상태였다. 임미영, 이득형, 김은 회원이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 등을 찾아내고 사무기능 점검 등을 하다. 179호 후원회소식은 회비임금 내역과 지출현황 없이 적은 분량으로 내기로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산대학교 초청으로 '21세기와 우리 민족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북한 핵문제의 성공 비결은 북미 간 협상뿐이다. 또 다른 대북제재는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금융제재 등 새로운 대북제재가 60년 동안 계속되었으나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군사적 도발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며 위폐문제가 더는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고 부시 행정부에 충고하다. 김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르몽드 피플 로마티크』 한국어판 창간 인터뷰에서도 북한 문제를 중국 봉쇄에 악용하는 미일 네오콘에게 한반도에서 손 떼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음.

16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2006 임을 위한 행진곡 –열사여 민중의 깃발이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추모연대, 계승연대 등 범국민 추모제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제17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가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다. 한충목 행사준비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유가협, 민가협 대표의 촛불점화에 이어 민중의례, 참가자 소개, 오종렬 행사준비위 상임 공동대표의 대회사,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문경식 전농의장,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등의 추모사와 송경동 시인의 추모시 낭송, 민중가수 박준의 추모노래, 전빈련 · 반미여성회 · 한청 · 한총련 대표의 결의문 낭독, 강민조 유가협 대표의 유족 인사말, 최도운 씨와 가극단 '미래', 노래극단 '희망새'의 추모공연이 있은 뒤 유족들이 분향헌화를 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안병길, 권오헌이 함께함.

이북 원산교원대학 노문학과 교원으로 있다가 6 · 25전쟁에 참전, 호남지역에서 후퇴 때 북상을 하지 않고 백운산 등에 입산, 빨치산 활동을 하며 현지 전남 로동신문 주필 등을 역임하셨던 정관호 선생님이 최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입원하시어 양심수후원회에서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54년 대공

세 때 체포되어 국방경비법 등으로 15년형을 받으셨고 4 · 19혁명 뒤 감형되어 61년에 출소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경과가 좋아 곧 퇴원하실 것이라 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17

용산미군기지 5번 문 앞에서 통일연대와 전국민중연대가 공동으로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대북전쟁계획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당국은 한미당국의 침략적 재편논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나서라."라고 촉구하다. 한상렬 상임대표의 여는 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18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와 전국민중연대 공동으로 '9.19 공동성명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대북제재 중단하고 공동성명 이행하라'고 촉구하다.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여는 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송현석 한청 서울시 의장의 결의 발언과 정재훈 한총련 학원자주화 추진 위원장의 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 강당에서 평택범대위 주최로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인사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황새울이 전쟁기지가 되면 우리 땅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라며 9.24 4차 평화 대행진에 모두 참가하여 우리의 평화염원을 모아내자고 하다.

양심수후원회 간사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임미영 회원이 잠정적으로 사무국 일꾼으로 일하다. '후원회소식지' 179호 교정을 보아 기획사에 넘기다. 사무국 사정에 따라 8월분 입금과 출금 내역이 빠지게 됨을 회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다.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리영희 교수 저작집 출간 기념모임과 간행위원회 주최 주관으로 '리영희 교수 저작집 출판기념회, 고난을 무릅쓴 선생의 역정을 우리의 희망입니다'가 각계 인사 3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리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회에서 리영희 교수는 '50년 집필을 마감하며'라는 소감에서 "내가 글쓰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원했던 사회변혁의 목적과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관념과 사상의 변화발전 분량의 50%는 이제 몇 해 동안에 달성되지 않았나 생각된다."라며, "고생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았지만 인간으로서 지식인으로 이 자리의 일원으로서의 몫을 다 한 셈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다. 간행위원회를 대표해 백낙청 씨가, 편집위원회를 대표해 김주언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이, 후학을 대표해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축사를 했고 고은 시인은 「어떤 서사」라는 축시를 낭송했다. 또 김선주 『한겨레』 논설주간 등으로 이뤄진 '리영희 오빠부대'가 「청실홍실」을 불러 리영희 교수와 윤영자 여사의 결혼50년을 축하하기도 했으며 가수 안치환 씨가 축가를 불렀고 리영희 교수의 삶과 사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음.

19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시민사회단체 성원과 매향리 주민 등 350여 명이 모여 '제84차 반미연대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 평택기지 확장중단과 용산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개정을 위한 재협상, 전략적 유연성 무효화와 한미상호방위조약폐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등을 촉구하다. 임미영, 권오헌 함께 참가함.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15일~18일 사이에 열린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2000년 6.15공동 선언과 2005년 9.19베이징 공동선언을 지지하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하다. 보도에 따르면 "제14차 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자주적 평화통일을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과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전적인 지지를 했다"" 고 하다.

오랜 싸움으로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를 이끌어 냈던 매향리 주민 300여 명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폭력장 내 오염물질 제거, 가상폭격훈련장 중단, 반환 폭격장 부지매각 반대를 외치며 국방부 규탄 집회를 열고 제3의 투쟁을 선포하다. 전만규 위원장도 삭발투쟁으로 결의를 다졌으며 추영배 상임고문의 여는 인사말, 범남본 이규재 위장의 연대사직도 미공군 국제사격장 저지 군산 대책위 전희남 상임대표 등 결의 발언과 매향리주민 대책위 최용분 부위원장과 직도대책위원회전희남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다.

20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소식지 발송작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행이 늦었지만 회원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문상봉 선생님, 권오헌 회장님, 이봉주, 송창학, 이득형, 양계숙, 임미영 회원이 도왔습니다.

21

후원회소식 179호를 국내 회원 1040여 명에게 발송하다.(임미영, 권오헌)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신문은 엄중한 단계에 이른 독도강탈 야망이란 기사에서 일본 반동들의 독도강탈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새 세기에 들어와 팽창할 대로 팽창한 일본 독점자본의 무제한 리윤추구를 군사적으로 실현하려는 데 그 음흉한 속셈이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인터넷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지난 11일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위원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소속 유족들과 실무자들은 농성 11일째인 이날 현재 '조사인원 충원 등 과거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위원장의 추진의지가 확인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 고 하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9·19 공동성명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당성이 없는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민족의 운명을 이제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우호세력과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하다. 또한 남과 북이 더욱 힘을 모으고 남과 북의 언론들이 민족화해와 교류 협력하여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다.

양심수들에게 후원회소식 179호와 월간 『민족21』을 발송하다.

23

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 발기인이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중앙위원을 역임하셨던 김병권 선생님 1주기를 맞아 파주시 청아공원 추모 장소에서 고 김병권 선생1주기 추모식을 갖다. 남민전 관련 동지들과 범민련 등 사회단체 원로 인사와 일산지역 민주노동당 일꾼들이 함께하여 박석률 동지 사회로 유족인 따님 김난영 씨가 분향·제배·추모의례를, 권오헌 동지가 약력소개를 했고 범민련 전창일 고문, 안산통일학교 박기래 교장, 안재구 남민전 동지가 추도사를 했으며, 안산시 민주노동당 노세욱 위원장이 고인을 회상하는 다짐 말씀 등을 했음. 마지막에는 다 같이 추모의례를 하고 모두 마침.

일산 후곡마을 11단지에 사시는 비전향장기수 신현칠 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90세이신 선생님께서는 지난 1996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을 해오시다가 그 후유증이 재발하여 지난 7월 5일 일산 백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당뇨와 전립선염 등으로 치료를 받으셨고 7월 24일 퇴원하시어 집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력, 청력이 떨어지고 소변을 보기가 불편해 계속 투병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권오헌 다녀옴)

오후7시 동아일보사 앞에서 평택범대위 주최 9.24 제4차 평화대행진 전야제가 열리다. 350여 명이 모여 이규재 범남본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신종원 팽성주민대책위 조직국장 미국평화재향군인회 존 킴 이사가 결의발언을 했고 전국평화행진단이 문화공연을 했으며 문정현 신부가 9.24 평화대행진 투쟁결의발언을 한 다음 「팽성은 우리 땅」을 열창하다.

서울역 광장에서 청년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성원 등 1500여 명이 모여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 점령 종식, 한국군 레바논 파병반대, 이란 공격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자이툰부대 완전철군을 위한 9.23 반전행동' 집회가 열리다. 대회를 마치고 광화문까지 행진하다.

24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 성원과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 13,000여 명이 모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촉구 제4차 평화대행진' 집회를 열다. 사전 행사로 풍물패 공연을 했고 청소년 문화센터 소속회원들이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 상황극을, 평택지킴이 학생들이 문예공연을 했음. 본행사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사회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위장의 대회사, 한국기독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문대골 위원장,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전농 문경식의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결의발언을 했음. 또 평화대행진에 참가한 미국과 일본 오키나와 대표들이 결의발언과 도두리가 고향인 정태춘 씨가 노래공연

을 했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정수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다. 결의문에서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과 전면재협상 대추리, 도두리 주민에 대한 탄압중단과 김지태위원장 즉각석방, 한미FTA 협상중단을 촉구하다. 철조망을 걷어 내고 평화의 배가 군중 속에서 연단 쪽으로 풍물패를 앞세우고 들어오는 평화행진이 상징 의식으로 치러지자 군중들이 함성을 터뜨렸다. 이보다 앞서 낮 12시에는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성원 3,500여 명이 모여 '9.24 4차 평화대행진 사전결의대회'를 열고 남영역까지 행진하다. 김호현, 안병길, 임미영, 이용준, 나순석, 김래곤, 권오헌이 후원회 깃발을 들고 함께 하다.

25

양심수후원회 후원계좌 통장을 재발급 받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통장은 재발급 받았으나 일부는 복잡한 절차때문에 다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급받기로 하다.

오후7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 운영위원회의가 있었슴. 회원관리와 회원확보 그리고 올해의 재정사업 등에 대해 깊이 논의하다. 사무국 간사가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어 모든 사무국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계좌통장 재발급, 사무국 일꾼 확보, 회비납부 강화를 위한 회원사업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11월로 계획되었던 서예전은 내년 봄으로 연기하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사무국 일을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임미영 회원을 사무국 차장으로 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하다.

오는 27일~28일 사이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예비회의가 열린다'고 국방부가 발표하다. SPI에서는 지난 2년간 했던 한미동맹비전 공동연구를 마무리 짓고 양측 대표가 서명할 것이라고 하다. 그 밖에도 한반도주변정세와 한미지휘관계 연구 등이 논의하여 10월에 있을 SCM에 보고할것이라 하다.

26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1981년 신군부 세력이 반국가단체로 조작하였던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이 '5공 반국가단체 조작사건 <아람회 사건> 불법 체포, 감금, 고문조작 가담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다. 5.18 아람회동지회 박해전 공동대표의 고소 고발 내용 등 경과 보고, 관련자 김창근 씨 사례발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이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시효없는 처벌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발언을, 윤한택 실천연대 공동대표가 결의 발언을 했음. 고소인은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김현칠 씨 5명이고 피고소인은 5.18학살책임자 전두환, '아람회사건' 당시 대전지검 검사 정용식, 성명 미상인 당시 대전경찰서장, 그밖에 이름이 알려진 대전경찰서 경찰관 등이다.

양심수 후원계좌 통장을 재발급 받기 위해 '18차 총회보고서' '후원회소식' 등 관련 자료를 갖고 제일은행 창신동 지점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 받다. 또한 국민은행과 농협의 통장도 재발급 받다.

서울대 축제기간에 맞춰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장터가 서울대에서 25~27일까지 열려 후원회원들이 민가협과 유가협 장터를 다녀오다. 소수영, 조명희, 임미영, 김은, 이정태, 김호현, 안병길, 장경욱, 권오헌이 함께했다.

평택구치소 앞에서 팽성주민대책위 주최로 '김지태 위원장 석방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문정현 신부가 여는 말을, 주민대표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과 민주노동당 안성지역장이 석방촉구발언을 했고 이어서 문화공연도 했음.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초청간담회' 가열리다. 6.25전쟁 당시 3년간 미 육군으로 복무했던 할리 아킨스 씨,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래리 커슈너, 죤 킴 씨 등은 한결같이 미군의 한국강점을 규탄하고 평택기지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다.

현지 시각 26일 뉴욕에서 열린 제61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강요한 부당한 제재 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나가지 않을것'이라고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최 부상은 또한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연습과 군사적 기도, 경제봉쇄 등은 묵인한 채 자위를 위한정당한 미사일 발사훈련을 매도한 반면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서 한 살육행위를 묵인하는 유엔 안보리의 무책임성과 불공정을 규탄하다.

27

용산 미군기지 5번 문 앞에서 통일연대와 전국민중연대 공동으로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대북전쟁계획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은 침략적 재편논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나서라'라고 촉구하다. 한상렬 상임대표가 여는 말을,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이 규탄발언을 했음.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와 통일연대소속단체 등 60여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집회를 열어 제10차 SPI 회의 및 SCM을 규탄하다. 유영제 평통사 시무처장이 여는 말, 김규철 범남본 서울시의장이 규탄 발언을, 미국 현지에서 SPI, SCM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평통사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이 전화로 활동보고를 했음.

28

종로 기독교회관2층 강당에서 통일연대 대표자 및 고문, 지도위원 비상연석회의를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의 활동보고. 사무처장의 재정보고에 이어 한현수 정책위원장의 하반기 사업계획안 발제를 토론하여 통과시키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도우미를 보내주시는 관악구자활후견기관에서 만남의 집을 방문하여 선생님들의 건강상태와 생활하는 모습을 살피고 가다. 양심수후원회 '후원회소식 180호' 편집모임이 인사동에서 있었습니다. 권오헌 회장님, 이득형, 임미영 회원이 함께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의 후손들이 추석을 맞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녘 애국열사릉 등을 참배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방북 승인을 했다고 밝히다. (사)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의 초청을 받고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성묘단(단장 서영훈) 26명과 관계자 13명, 취재진 10여 명으로 방북단을 구성했다고 하다. 현재 북녘에 안치된 임시정부 요인은 모두 15명인데 이번 성묘 대상은 애국열사릉에 있는 5기, 재북 인사릉에 있는 4기, 일반묘에 있는 2기 해서 모두 11명이다.

29

한찬욱 운영위원이 김수룡 선생님과 함께 일산에 계신 신현칠 선생님을 찾아뵙고 종일 여러 병원을 찾아보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산경찰청 앞에서 부산여성단체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아이 · 교사 · 학교 · 우리 모두의 인권을 침해한 여중생의 교사 동태파악 요구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동태를 파악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해당경찰관과 책임자 처벌, 전말 공개와 부산 경찰청장 공식사과, 교사의 동태를 파악하라고 요구하는 자리에 입회한 교감 문책, 여중생 강압수사에 대해 교육감 공개사과, 재발 방지책 수립을 촉구하다. 전교조 '통일학교' 관련 여중생에 대한 강압수사로 이어지면서 이처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었음. 부산 경찰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을 새벽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고 26일엔 부산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을 강제 연행하기도 했음. 27일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반인륜 수사 불법침탈, 전교조 공안조작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하다.

30

비전향장기수로 살아계실 때 북녘 신념의 고향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세상을 떠나신 정순택 선생님 1주기를 맞아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주최로 양심수후원회와 통일광장 선생님, 민가협 어머님들이 함께 모여 '통일애국열사 정순택 선생 1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영정과 통일애국열사신위 지방을 써 붙여놓고 제사상에 메(밥), 통닭, 전, 채, 과일, 포, 편 등을 푸짐하게 갖추어 놓고 향을 피워 제사를 올렸습니다. 김호현 부회장 사회로 권오헌 회장님이 제주를 대신하여 첫 잔을 올리고 모두 같이 추모의례를 했으며 이현근 회원이 선생님의 약력소개를 한 다음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권오헌 회장이 추모말씀을, 양희철 옥중 동지가 고인에 대한 회고담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광장 선생님, 민가협 어머님,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이 분향재배하고 행사를 마침. 오늘 1주기 행사를 위해 민가협 어머님들께서 온종일 음식을 마련하셨고 안병길 목사님은 집에서 기른 큰 닭 3마리를 가져오셨으며 김호현 부회장이 제기를 비롯한 제물 일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장조카님은 만남의 집으로 오던 길에 요로결석 때문에 병원으로 가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